



농촌진흥청 개발 ‘국화’, ‘단감’, ‘감초’ 대한민국 우수 품종 선정

- 21일 국제종자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시상
- 흰녹병 저항성 대형 국화 ‘백강’ 국무총리상 수상
- 크고 아삭한 단감 ‘감풍’, 국내 적응성 우수한 감초 ‘원감’ 나란히 장관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국화 ‘백강’이 ‘2026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단감 ‘감풍’과 감초 ‘원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 품종을 육성한 연구자들은 10월 21일 국제종자박람회(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개막식과 연계해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을 발굴해 육종가와 종자 기업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돋우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국화 ‘백강’은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 품종이다. 사계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농약 사용량 약 30%, 겨울철 난방비 약 20% 줄일 수 있다. 특히, 꽃잎이 단단하고 꽃(절화) 수명이 길어 일본 품종이 주도해 온 흰색 대형 국화 시장에서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액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5년 24.1%로 증가했으며, 일본 수출도 꾸준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단감 ‘감풍’은 평균 열매 무게가 약 400g에 이르는 품종(극대과)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후숙하면 멜론 같은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주요 생리장해 발생이 적고, 꽃봉오리·열매숙기

작업도 수월하다. 재배면적이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119.1헥타르(ha)까지 늘면서 국내 단감 품종의 세대교체를 이끌 유망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감초 ‘원감’은 국내 적응성과 생산성이 우수한 우리나라 최초 감초 품종이다. 쓰러짐에 강하고 점무늬병 저항성이 있으며, 주요 성분(글리시리진, 리퀴리티게닌) 함량이 수입 감초 대비 2배 이상 높아 2023년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됐다. 재배 규모는 약 15헥타르(ha)이며, 의약품에 더해 식품과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증가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배 안정성과 품질, 시장성을 두루 갖춘 품종을 개발·보급해 원예특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 품종(농촌진흥청 개발)

담당 부서 <총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유은하 (063-238-6800)
		담당자	연구사	임소현 (063-238-6814)
<공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책임자	과 장	전지혜 (061-330-1510)
		담당자	연구사	이별하나 (061-330-15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창 (043-871-5600)
		담당자	연구관	이정훈 (043-871-562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국무총리상(1점)

품종명(작물명)	품종사진	수상자	상세설명
백강 (국화)		정재아 연구관	○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로 사계절 안정생산 가능 ○ 꽃잎 빠짐이 없고 절화수명이 길어 상품성·유통성 우수 ○ 흰녹병 저항성과 저온개화성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6년 만에 시장점유율 100배 이상 성장 * 공영도매시장 거래액 점유율: ('19) 0.2% → ('25) 24.1% * 평균 경매가('25, 원/속): '백강' 6,696, '백산' 4,506 ○ 일본 수출 및 해외 품종보호 등록을 통한 국산 품종의 해외 경쟁력 확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2점)

품종명(작물명)	품종사진	수상자	상세설명
감풍 (단감)		마경복 연구관	○ 10월 중·하순 수확하는 평균과중 400g의 극대과 완전단감 ○ 과즙이 많고, 배처럼 아삭한 식감 ○ 기존 품종 '부유' 대비 꽃봉오리 숙기 등 재배작업이 용이해 약 32% 노동력 절감 가능 ○ 전문생산단지^{창원·고흥·영암} 조성 등 재배면적 및 시장점유율 증가 추세 * 도매시장 반입물량: 4년간 9배 ↑ ('22) 첫 출하 1.52톤 → ('25) 13.98
원감 (감초)		이정훈 연구관	○ 감초 국내 최초 품종 ○ 수량성 359kg/10a(27% ↑) ○ 글리시리진 3.96%, 리퀴리티게닌 0.81%로 대한약전기준 충족(2.3배 ↑) ○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과 점무늬병 저항성 우수함 ○ 전립선비대증·골관절염 개선, 대장염·췌장염 억제, 폐보호 신규 효능 입증 ○ 2년 만에 '원감' 55% 이상 급속 보급 확대 ('23 2.5% → '25 57.7%)